

Thematic Radar

Ep. 53 중국 성장주가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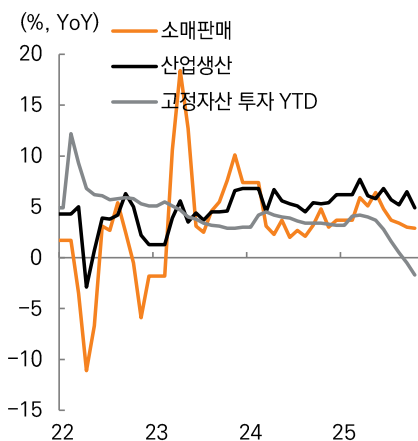
- 12월 FOMC 금리인하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미국 기술주 관련 우려 당분간 지속될 것. AI 수익성 우려 지속
- 중국은 내수 부진 및 부동산 침체 개선을 위해 유동성 확장 정책 지속. 추가 부양책 및 저금리 기조 유지
- 중국의 유동성 팽창 기조가 AI, 바이오 등 중국 성장주에 긍정적. 미국 테크의 대안 옵션으로 검토할 필요

지난 21일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으로 12월 FOMC 금리인하 가능성은 70%까지 상승했으나 미국 기술주 관련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9일 장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빅테크들의 순환 투자 발표와 대규모 회사채 발행 소식이 이어지며 미국 AI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영향이다. 테크 기업들의 스프레드도 상승세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에 있다. 중국은 내수 부진 및 부동산 침체를 개선하기 위해 유동성 확장 정책을 이어가는 중이다. 올해 들어 강도 높은 유동성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국 내 장기 금리는 상당히 낮아진 상태다. 중국 중앙은행의 잇따른 금리 인하로 실질적 기준금리인 1년물과 5년물 LPR(대출우대금리)은 각각 3.0%, 3.5%로 내려왔고, 올해 들어 약 3.2조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제공했다. 중국 내수는 10월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5개월째 증가율이 둔화되어 상당히 부진하고, 미국과 다르게 중국은 현재 디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새로운 부양책과 유동성 팽창 조치를 이어가야 하는 배경이다. 20일에는 중국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규모나 방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신규 주택 구매자 대상으로 모기지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가계 부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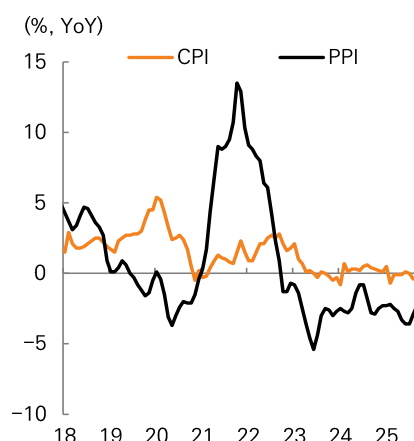
이러한 중국의 유동성 완화 기조는 중국 성장 산업 전반에 긍정적이다. 실제로 올해 중국 증시에서는 저금리를 기반으로 AI·바이오 등 성장 업종이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다. 미국 성장주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금리인하 기대 약화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낮은 중국 성장주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올해 MSCI 미국 성장주 지수가 +17% 상승한 데 비해 MSCI 중국 성장주 지수는 +25% 상승했다. 홍콩 기술주에 투자하는 Global X Hang Seng Tech ETF(2837 HK)와 중국 바이오텍에 분산 투자하는 Global X China Biotech ETF(2820 HK)를 통한 접근을 권고한다.

그림 1. 중국 산업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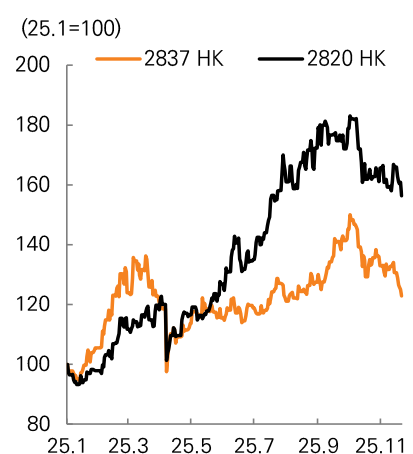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중국 물가지표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중국 성장주 ETF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